탁아소 교육기능 소홀하다

교육학회 「영 유아교육 방향」세미나

최근 탁아관계법입법과 관련한 여성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탁아는 아동의 단순보호기능뿐만 아니라 교육기능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탁아혜택 13%뿐…「단순보호」그쳐

성격형성 지능발달 도움주도록

지난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회(회장李元寧중앙대교수·유아교육학)주최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의 정책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탁아의 내용과 기능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세미나에서「여성의 사회진출과 영유아보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 서울여대 姜文姬교수(아동심리학)는『현재 전체탁아대상아동중 약13%만이 탁아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 대부분이 단순한 보호차원에서만 위탁되고 있다』면서『이제 탁아는 유아교육과정으로서의 교육요소를 지닌 프로그램으로 확대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姜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탁아소는 지역탁아소 직장탁아소 88탁아원 새마을유아원 종일반등 그 유형에 관계없이 보호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4~5세대상 유치원종일반등 일부 탁아기관만이 교육과 보호기능을 결합하고 있다는것.

한편 탁아의 기능이 단순보호냐 교육이냐는 논란에 대해 이화여대 李京雨교수(유아교육학)는『탁아의 기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탁아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 부모들의 의견』이라며『여러 조사결과를 살펴볼때 부모들은 단순한 보호가 아닌 교육과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탁아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얼마전 6세미만 자녀를 둔 도시빈민기혼여성 2백여명을 대상으로 「도시빈민층 기혼여성의 탁아에 대한 욕구」를 알아본 이화여대의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이들중 66·3%가 자녀의 원만한 성격형성이나 지능발달을 위해 탁아의 교육기능을 원하고 있었으며 33·7%만이 대신 아이를 보호해주는 보호기능을 원했다. 또 이들 부모들은 넓은 놀이공간및 놀이교재들을 제공받길 원했으며 특히 유아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뤄질수 있는 공인 유치원을 가장 선호했다.

이들은 또 60%가 취업상의 편의등을 이유로 전일제를 원했으며 40%가 자녀의 휴식및 건강상의 이유로 반일제를 선호했다. 어린이를 보호교육해줄 적임으로는 20~30대 기혼여성으로 전문대나 졸업자를 원하고 탁아비용은 전일제 2만~5만원, 반일제 1만~3만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하면서 정부 또는 직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했다.

李교수는 이어『저소득층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올바른 양육방법 놀잇감선택방법등을 가르치는 부모에 대한 교육역시 탁아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英伊기자〉

▲ 최근 탁아관계법 입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탁아는 단순보호의 기능을 벗어나 교육적 기능도 곁들여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